

제1차 유권자 인식조사 결과 “반드시 투표하겠다” 76.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회의원선거 관심도 및 투표참여 의향 등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 10명 중 8명 이상(83.3%)은 이번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10명 중 7명 이상(76.5%)이 ‘반드시 투표 할 것’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조사결과를 보면,

■ **국회의원선거 관심도** 이번 선거에 ‘관심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83.3%로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조사 결과(81.2%)보다 2.1% 증가하였다.

【국회의원선거 관심도 (%)】

연령별	제22대 국선	제21대 국선	증감률(%p)
전체	83.3	81.2	2.1
만18-29세	56.8	64.3	-7.5
30대	77.9	83.3	-5.4
40대	88.1	87.6	0.5
50대	90.8	82.7	8.1
60대	91.7	88.1	3.6
70세 이상	91.6	82.9	8.7

■ **투표참여 의향**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76.5%, ‘가능하면 투표할 생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8.2%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적극적 투표 참여 응답자는 18세-29세 이하 52.3%, 30대 65.8%, 40대 76.9%, 50대 84.2%, 60대 86.8%, 70대 이상 90.8%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실제 투표율 : 66.2%

【 적극 투표참여 의향 (%) 】

연령별	제22대 국선	제21대 국선	증감률(%p)
전체	76.5	72.7	3.8
만18-29세	52.3	52.8	-0.5
30대	65.8	71.3	-5.5
40대	76.9	77.0	-0.1
50대	84.2	73.8	10.4
60대	86.8	83.8	3.0
70세 이상	90.8	82.5	8.3

■ **사전투표 참여** 투표 참여 의향이 있는 유권자 중 ‘사전투표일에 투표할 것’ 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41.4%인 것으로 나타나, 직전에 실시한 임기만료 선거인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조사 결과(45.2%)보다는 낮았으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26.7%)와 제20대 대통령선거(27.4%) 당시 조사 결과보다는 증가하였다.

※ 역대 사전투표 투표율 : 제21대 국선 26.7%, 제20대 대선 36.9%, 제8회 지선 20.6%
 사전투표를 하려는 이유로는 ‘사전투표가 편리해서’가 31.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전투표일에 미리 투표하고 선거일에 다른 용무를 보려고’ 26.0%, ‘선거일에 근무, 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투표할 수 없어서’ 17.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후보·정당 선택 기준** 지역구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고려하는 사항으로 ‘소속 정당’이 28.9%로 가장 높았고, ‘정책/공약’ 27%, ‘능력/경력’ 22.4%, ‘도덕성’ 16.5%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 지역구 후보자 선택 시 고려사항 (%) 】

구 분	소속 정당	정책/공약	능력/경력	도덕성	주위의 평가	개인적 연고	출신 지역	기타	모름/무응답
제22대 국선	28.9	27	22.4	16.5	2.8	0.5	-	0.2	1.7
제21대 국선	29	29.7	32.9		2.7	0.5	0.7	0.2	4.3

비례대표 정당을 선택하는데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비례대표 후보자의 인물/능력' 24.8%, '정당의 정견/정책' 22.9%,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자 소속 정당' 19.6%, '지지하는 정당과 긴밀하게 연관된 정당' 13.5% 등의 순이었다.

【 비례대표 정당 선택 시 고려사항 (%) 】

구 분	비례대표 후보자의 인물/능력	정당의 정견/정책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자 소속 정당	지지하는 정당과 긴밀하게 연관된 정당	정당의 이념	기타	모름/무응답
제22대 국선	24.8	22.9	19.6	13.5	12.2	0.2	6.8
제21대 국선	21.3	26.7	25.7	-	17.8	0.2	8.2

■ **공명선거 인식**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분위기에 대해 '깨끗하다'(29.4%)는 평가가 '깨끗하지 못하다'(25.8%)보다 높게 나타났다. 깨끗하지 않은 이유로는 '정당·후보자의 상호비방·흑색선전' 35.2%, '언론기관의 불공정한 보도' 22.9%를 꼽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인지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에 대해 '알고 있었다(55.3%)'고 답한 응답자가 '몰랐다(44.1%)'고 답한 응답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투표효능감** 투표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능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선거를 통해서 국가 전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 유권자 72%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고, '선거를 통해서 나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는 57.5%가, '내 한표는 선거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에는 78.5%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조사 결과 투표참여 의향이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공정하고 신뢰받는 선거관리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화합하고 하나가 되는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전국의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18일과 19일 전화면접(CATI) 방식으로 실시하였고, 표본프레임은 무선전화 가상번호(89.3%) 및 유선전화 RDD(10.7%)를 활용하였다. 응답률은 16.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2.5\%$ p이며,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부여(2024년 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하였고, 세부 내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의식조사(제1차) 결과 1부